

지역 소식통

부안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 발굴 나서

부안군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집중 발굴에 나섰다.

군 통합돌봄TF팀에 따르면, 올해 발굴 목표인 640명 중 현재까지 76명을 발굴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중이며, 남은 하반기 동안 홍보 및 발굴 역량을 집중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사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병원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장단과 협력하여 복지 이웃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원실 환경

누구나 편리하게 개선

고창군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해 민원 순번대기 시스템과 민원 안내 유도선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순번 대기 시스템은 시각 약자를 위한 큰 화면과 점자 키 패드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창구별 대기시간과 순서가 명확해져 처리 순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고령층이나 청력기 좋지 않은 민원인과 창구 직원 간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방향 마이크도 설치했다. 민원실 바닥에도 유도선을 부착해 각 창구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확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명품 천일염 명품화 시동

천일염 육성 지원사업 추진... 군비 투입해 포장재·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 지원

고창군이 관내 염전 어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고창 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해 '2026년 천일염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현장 어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도비 매칭 형식으로 군비를 투입해 온 민생 정책이다.

군은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인 '천일염 산업 육성' 중 '천일염 품질·위생관리'의 일환으로 포장재 및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를 지원한다.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

산업표준(KS)'에서 인증된 소재를 사용하여 풍부한 미네랄을 살린 고창 천일염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동시에 염전 어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유통 시설' 분야 지원을 통한 염전 작업 환경의 기계화·현대화를 전면 추진한다.

자동채염기와 전동대파기 등 현대화 장비를 도입·지원해 작업 피로도를 대폭 낮추고 인건비 절감 등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인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에 필수적인 톤마대와 파렛트 등을 어가에 직접 지원한다. 천일염 유통 과정에서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라져가는 전통 어업 방식인 고창 자염업을 보전·유지 및 전승하기 위해 '고창 자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시 인프라 개선 및 콘텐츠 확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화물차에 광고 부착... '달리는 정읍 홍보대사'

정읍시, 전국 누비는 화물자동차에 지역 명소 외부 광고 부착... 정읍 관광 홍보 효과 극대화

정읍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전국을 달리는 화물차에 지역 명소 광고를 붙여 대대적인 관광 홍보에 나선다.

시는 최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일대에서 제조 작업과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차고지 안쪽 주차 구역을 비롯해 진출입로, 주변 녹지, 배수로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성하게 지란 풀을 베어내면서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치워 시설 전반의 관리 수준을 높였다. 특히 많은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차량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화물자동차를 활용해 정읍 관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택시 50대에 '정읍의 명소 5경'을 주제로 한 외부 광고를 붙였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 4대를 추가하면 현재 총 511대의 택시가 지역 명소를 알리고 있다. 여기에 정읍향우회

소속 기사가 운전하는 전주 택시 100대에도 외부 광고를 부착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 택시에 이어 전국 각지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도 같은 외부 광고를 붙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장거리를 운행하며 활동 범위가 넓어 전국을 무대하듯 노출 효과가 뛰어나다. 시는 화물차가 정읍의 관광 명소와 도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이동형 홍보 매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본격 가동

'이러야 작가 상주'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이라야 작가와 함께 하는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에 머물며 시민들과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립중앙도서관 상주작가로는 아동과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라야 작가가 나선다.

이 작가는 최근 출간한 '파이트'를 비롯해 '올드 보이 선생님', '비확인 바 이러스', 'AI 시대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나는 오늘 칸트를 만나 행복해졌다' 등 어린이부터 성인 을 아우르는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이번 사업은 연령별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해 다양한 맞춤형 문학 과정으로 꾸려진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는 지역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정읍 이야기북, 정읍을 담고 쓰다'와

세계 고전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고전, 클래식은 영원하다'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문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사춘기는 처음이라'를 통해 사춘기의 심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 방향을 찾는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책과 나 VS 챗지피티(ChatGPT)' 과정을 열어 질문 생성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26일 시작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고유가 지원금 집행률 제고 나서

지원금 신속 지급·소비 독려 간담회 개최... 읍·면 현장 홍보 강화

부안군은 2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속 지급 및 사용 독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의 전 개최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읍·면별 지급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신속한 신청과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우수 차치단체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 접접인 읍·면을 중심으로 밀착형 현장 홍보와 피켓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원금 집행률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지 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맞춘

부안군-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중대재해 예방 협약 체결

부안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26일 부안군청에서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이재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지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근로감독 전문성과 부안군의 행정적 근조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 △어업 분야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으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분야에 대해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등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행정보 연계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 △어업 분야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나서

143명 근로자 현장 점검 추진

정읍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 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인권 침해 여부와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업무협약 방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들의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현재 정읍 지역 150여 농가에는 710

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근로자 대상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고용주와 근로자 현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차례로 살피고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3일에서 5일 전 샘플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하루 1인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